역사 오류·기독 편향…광화문 물길 연표 '총체적 난국'

조계종 사회부·종평위 세미나서 학자들 한목소리 비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새롭게 조성된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의 연표가 오류의 여지 많은 잘못된 표기이고, 기독교 편향적으로 기술됐다는 주장이 전문 역사학자들을 통해 제기됐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범종)와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는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표석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역사 물길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 연표석에 수록된 역사적 내용들의 편향성과 오류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교과서엔 있는 한국사, 물길 연표엔 없다

〈연표로 보는 한국역사〉의 저자인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는 한국에 유통되는 역사교과서 8종에 수록된 연표와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의 연표석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역사교과서에서 조선시대 연표는 60개 내외가 수록돼 있고, 이는 해당 시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의 경우 630개 연표석 중 250개 내외를 조선시대에 할애했으나 역사교과서 속 연표는 상당수 누락됐다.

'조선 건국'의 경우 역사교과서 8종이 모두 1392년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역사물길 연표석은 '태조 1년 태조 즉위'가 새겨져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 6종에서 모두 기재된 '1768년 서학 금지'는 역사물길 연표석에서는 누락됐으며, 대신 김정희의 출생을 연표에 넣었다.

김 교수는 "태조 즉위가 전제가 되는 조선 건국이 누락됐다.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 물길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학 금지의 경우도 조선 조정에서는 체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조선 후기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물길의 연표석에는 이를 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류 여지 연표도 상당 수다. 조선시대 인구를 조사해 호패를 착용하게 했던 호패제도 실시를 역사 물길 연표석에는 '1402년 태종 2년 호패법 실시'라고 돼 있으나 호패제도는 1413년(태종13)에 시행됐다는 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며,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기도 하다.



조계종 사회부와 종교평화위원회는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선 건국 1392년을 태조 즉위로
교과서 연표 '서학금지' 누락하고
'보우 처벌' 등 논쟁적 역사 수록

조선-근대기 불교 6건, 기독 10건
불교 대부분 부정적 역사로만 부각
"불교에 무지하거나 기독교 편향적"

또한, '1420년 세종 2년 집현전 설치'로 역사 물길 연표석에는 새겨져 있으나, 집현전은 이전 정종 때 설치됐고, 유명무실했던 집현전을 세종이 즉위하면서 이를 궁 안에 들였다. 그렇기에 학계에서는 이를 설치가 아닌 '확장'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역사 물길 연표석을 검토해보니 최근 연구 성과가 폭넓게 반영돼 있지 않은 점이 여러군데 보인다"면서 "현재의 문화유산이나 역사 인물을 놓고 연표로 만들 것인가, 당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 방향 설정도 파악하기 힘들다. 역사 물길 연표 작성의 기획력 부재와 '로드맵 정신'이 희미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기독교 편향인 역사 물길 연표석

조선불교사 전문가인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의 기독교 편향성에 대해 분석하고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 내 조선-일제강점기 구간의 불교 연표석은 6개이며, 기독교는 10개이다. 이 중 불교는 '1473년(성종 4) 사족 여성, 승려됨을 금지'나 '1565(명종 20)년 보우 처벌' 등 연표상 불필요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반대로 기독교 역사 연표석은 이광정이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를 가져오거나, 이승훈이 천주교를 선교하기 시작한 것,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 귀츨라프가 한국에 들어온 것 등 필요 이상의 내용들이 기술돼 있다.

김 교수는 "보우 스님은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훗날 임진왜란 의승군을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삼았다. 이 같은 연구 성과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반대로 서상륜이 황해도 장연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까지 서울시 공식 역사 연표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은 불교에 무지하거나 다분히 기독교 편향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시대를 유교적 프리즘으로 바라보면 조선적 전통의 외연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역사를 정치사와 유교적 관점에서만 기술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은 다양한 영역과 분야, 주제의 사건과 인물, 사실들이 망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이 광화문 역사 물길 근현대 연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전문가 발제 이후에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 김광식 동국대 교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지역문화, 선양 사업 중 역사적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다. 서울시 광화문 역사 물길 연표석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오늘 확인된 오류 등 보완 사항들을 취합해 서울시에 전달하고 시정케 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 '부처님 고행상' 한국 전시 제안

무니르 파키스탄 대사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에게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소장된 '부처님 고행상' 한국 전시를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대사로부터 취임 축하 인사를 받은 진우 스님은 마라난다 스님이 4세기 경, 백제에 불교를 전한 이야기를 꺼내며 파키스탄과 한국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前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난 2019년 파키스탄에 방문, 대통령 면담 중 '부처님 고행상'을 한국에 전시하고 싶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이 한국과 파키스탄 수교 40주년을 맞는 만큼, 부처님 고행상의 한국 전시가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11월 28일 예방한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와 진우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 왼쪽)과 11월 29일 예방한 나경원 부위원장과 환담을 나누는 진우 스님(사진 오른쪽).

이에 나빌 무니르 파키스탄 대사는 "파키스탄은 한국과 불교문화를 위해 여러 협력을 이어 온 만큼 고행상 전시가 순조롭게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우 스님을 파키스탄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나경원 부위원장 예방도 진행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11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어려운 소임을 맡았다고 격려하고 "정부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환경이 출산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면서 "불교계는 마음 다스림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사회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각계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종교, 불교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포교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마음 다스리는 법을 통해 사회 안정과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 인재로 성장해 전법해주길"

동국대 종단 장학생 예방서
8·9기 장학생들 감사 인사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동국대에 종단 차원의 전액 장학제도를 운영 중이다. 불자로 신심이 돈독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10명가량을 선발해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2013년부터 시작돼 현재 9기까지 선발됐으며, 약 50여 명의 학생이 조계종 총무원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8·9기 동국대 재학생들이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지난해 선발된 장학생 8기 회장과 부회장에게 한해 활동을 보고 받았고, 9기 장학생들에게는 감사편지 모음집을 선물로 받았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 장학금은 전국의 조계종 스님들의 마음이 모인 것이다. 스님들은 시주를 받아 그 일부를 종단에 전했고, 시주는 한국 불자와 국민들에게 나온다. 여러분은 온 국민과 불자들의 정성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잊지 말고 학업에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28일 총무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8·9기 동국대 재학생들의 예방을 받았다.

이어 "무엇보다 종단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는 만큼 부처님 법을 잘 믿고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 이게 부처님을 법을 전하고 포교하는 일"이라며 "불교 인재로 잘 성장해 부처님 법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직지사 주지 후보 장명 스님 단독출마

12월 9일 산중총회 예정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후보에 前 중앙종회 부의장 장명 스님〈사진〉이 단독출마했다.

제8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성)는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장명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명 스님은 12월 5일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친 뒤 12월 9일 열리는 직지사 산중총회를 통해 당선이 확정된다.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본사 주지 후보로 단독입후보할 경우 투표 절차 없이 산중총회 개회와 함께 당선을 확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명 스님은 조계종 환경위원장, 제14·15·16·17대 중앙종회의원과 17대 중앙종회 전반기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연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노천당 월하대종사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 해동고 학생 장학금 전달식)



귀의 삼보하옵니다.

영축산에 깃든 설한의 한 소식은 노천당 월하대종사의 수행 가풍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영축총림 통도사와 노천문도회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대 종정을 지내신 "노천당 월하대종사의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와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큰스님의 덕화를 기리고 유지를 받들어 뜻을 선양하는 자리에 두루 참석하시어 더욱 의미있는 법석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
(재)영축문화재단 이사장

● 일시 : 불기2566년 12월 4일(음 11월 11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
● 문의 : 055-382-7182

제10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 수상자
학술문화상 김호귀(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교수)
봉사실천상 진오스님(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포교원력상 법광스님(경남 파라미타 협회 지도법사)

■ 장학금전달식 해동고 학생 10명

